

장수군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해

14일 까지 본청 비롯한 사업소, 읍·면 등 대상, 특별 감찰 활동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장수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일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이번 감찰이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내

부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하위 출장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및 중식 시간 미준수 △민원 업무 지연 및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이다.

또한 군은 귀성객 편의,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청소관리 등 군민 불편사항, 상하수도 등과 등 생활민원 관리, 대형 공사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비노출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찰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다.

김서주 기자

첨단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엔진 구축한다

RE100, 차세대 모빌리티, AI·플라즈마 3대 성장축 마련

군산시는 에너지(RE100)·산업(미래 모빌리티)·기술(AI·플라즈마) 을 3대 성장축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엔진 구축에 본격 나섰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필요한 첨단기업 유치에 위한 RE100 기반 산업 인프라를 새만금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하고,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 및 무인도동체 실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며, AI·플라즈마 융합 및 제조 혁신 AX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플라즈마기술연구원,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지역 내 13개 혁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5국 3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대 성장축과 연계된 실행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펼쳤다.

제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기술 고도화 ▲피지컬 AI 기반 무

인 중장비 실증기술 개발 ▲무인수상정 MRO 단지 구축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 상용화 연계검증·지원 인프라 구축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원사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임준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흐름에 군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견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AI, 반도체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임 기자

해남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완료

해남군은 가뭄과 수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수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2025년 12월 말부터 해남정수장(지방상수도)의 광역상수도(장흥댐) 즉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수계 전환을 통해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에 신속한 비상급수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송지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을 완료해 송지 지역 전반에 대해 광역상수도(장흥댐) 전환이 가능한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송지 비상공급망은 지난 2022년 극심한 가뭄으로 송지 지방상수도 수원지 저수량이 급감했을 당시 안정적으로 용

수를 공급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장흥댐)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로, 단수 및 적수 발생 등의 수도사고 발생 시 피해 구역을 최소화하고 끊임없는 수도물 공급을 위해 구축되었다.

특히 비상공급망은 주요 송수관로를 이중으로 확보하는 복선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평상시에도 수압·수량·수질의 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향후 수도 사용량 증가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확장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비상공급망 구축은 수도사고 발생 시 군민의 불편을 최

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언제든 광역상수도로 전환 가능한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고구마 주요 병해인 덩이줄기썩음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한 특허는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을 역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방식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병원균에 대한 종 특이성이 높아 신속·정확·간편한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덕현 기자

설향딸기, 올해 홍콩으로 첫 수출길 올랐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의 대표 고품질 농산물인 '설향' 딸기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0일 춘향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조합장 김영규)에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과 시·도의 회 의원, 전북도 및 농협 관계자, 수출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딸기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적된 딸기는 남원산 설향 품종 1.440kg으로, 시가 약 5천만 원 규모

다. 남원 설향 딸기는 모양이 균일하고 겉면에 윤기가 흐르는 선명한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미가 어우러진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홍콩 선적을 기점으로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목표는 총 30톤, 약 4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간담회와 선별장 순람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첫 수출은 남원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남원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남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2월 10일 대산면 방문을 끝으로 약 3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정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동의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1월 22일 산동면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 형식을 벗어나, 시민이 질문하고 시장이 답하는 ‘쌍방향 참여형 소통 방식’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승민 기자

전북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 푼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 11개 시군, 전북은행 등 8개 금융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올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4,170억 원 규모의 '회생 보듬자금'을 본격 가동한다.

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저금리 자금과 장기보증을 제공해 경영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개 시군, 8개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1개 시군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21개 기관은 총 333억 6천만 원을 공동 출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20억

원, 전북신용보증재단 90억2,000만원, 11개 시군 56억 5,000만원, 8개 금융기관 166억 9,000만원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맡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듬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 특례보증에 도가 이차보전을 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지원 한도도 기업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경영애로기업은 최대 7천만 원, 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 기업은 최대 1억 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시군도 연 1~3%를 추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00억 원을 목표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오늘 협약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과 함께 공부하는 정책 플랫폼, 전북자치도 백년포럼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년포럼은 2024년 5월 임영상 명예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이날 채상훈 교수(싱가포르南洋기술대학교의 '반도체 발전과 AI 동향' 강연에 이르기까지 모두 46회를 맞았다.

백년포럼은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정 핵심 아젠다와 신산업, 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정책 학습·소통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행정 내부 중심의 정책 논의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구조를 띄고 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도민 참여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8,569여 명에 이른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민 누구에게나 열린 정책 스테디 공간으로 백년포럼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특례 반영 강행군

국회의원 간담회…국무총리, 국회 행안위 지도부 면담



하며,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

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라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핵심특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덕현 기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화재보험료 지원추진

무주군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에 대해 80%,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 1~12월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대상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2곳까지 인정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화재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무주군청 지역경제팀장은 "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기 넘치는 무주경제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안정 자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 지원(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면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

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제27기 로컬100(이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축제의 매력성과 지역 문화와의 연계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생태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앞으로 2년간 '무주반딧불 축제 지역문화매력 100선' 인증 현수막을 걸고, △지역문화매력 100선 누리집 게재, △사회관계망(SNS) 홍보, △관련 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서주 기자